

# 창업기업 아이디어 · 소공인 제조 역량 협업

###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과제 43개 선정... 시제품 제작 · 제품화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와 지역 소공인의 제조 역량을 연결하는 협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단순 외주 제작을 넘어 공동 기획과 제품 개발 체계를 구축해 지역 제조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제품을 개발하는 협업 과제 43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아이디어와 시장기회

역량을 가진 창업기업과 실제 제작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연결해 시제품 제작과 제품화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창업기업이 설계와 기획을 맡고, 소공인이 제작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단순 제조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 기획과 반복적인 설계 보완 과정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안정적인 제조 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소공인은 새로운 고객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과제는 정밀가공, 데이터 기반 장비, 생활소비재 제품화, 제조공정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대표 사례로는 숲 임크를 활용한 한지 포장재, 전통주 기반 아이스크림, 깃털 주형 이동장치, 지능형 금형 시스템 등 기술과 소비재를 접목한 아이디어가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제조 분야 비중이 높았으며, 부품·장비, 바이오·헬스, 식품가공 등 제조업 전반으로 협업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부권과 호남권 과제가

다소 많았지만 대경·강원·동남권 등 비수도권 전역에서도 고르게 선정돼 지역 제조 기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중기부는 사업과 연계해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소공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창업기업과 제조기업 간 연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에는 공정, 소재, 제작 가능 범위 등 기본 정보가 제공되며, 설비 수준과 정밀도 같은 심층 정보는 기업 간 연결 이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제조 협력기업 탐색 부담을 줄이고, 소공인에게는 지속적인 시제품 제작 수요를 연결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8일 원주 고산농협에서 개정 신상품인 'NH울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1호 가입 행사를 개최했다.

## 요양 · 간병 보장 강화 상품 선보여

### 농협생명 전북총국, NH울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1호 가입 행사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이 고령화 시대 증가하는 간병·요양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신상품 보급에 나섰다.

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8일 원주 고산농협에서 개정 신상품인 'NH울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1호 가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과 간병 수요에 맞춰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기간병과 복합재가 보장을 확대하고, 고객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NH울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구성돼 있으며, 요양과 간병 특약

을 분리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또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간병 특약에는 갱신형을 추가해 초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1호 가입 행사가 열린 고산농협은 최근 법률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등 조합원 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는 지역 농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재가·시설 요양 보장 기능을 강화한 이번 상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근 기자

# 교통약자 보호시설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확대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어린이 · 장애인 · 노인 보호시설 대상 참여기관 모집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시설의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내·외부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사업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놀이공간과 차량 이동 구간 사이에

안전자바라를 설치하는 등 총 11건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 기준 어린이 시설에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까지 확대해 보다 폭넓은 교통약자 안전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기관에는 분야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한국도로공사 안전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지원금은 △진입로 미끄럼 방지 시설 △점자블록 및 유도블록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모서리 보호대 설치 등 시설 내·외부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메일(documenta@ex.co.kr)로 제출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세미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제도와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유관기관 등 31개 기관·기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

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기술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최근 시행된 관련 법령 안내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공유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충전시설 증가에 따라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제도 정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오상근 기자

## 전북은행, 'JB슈퍼씨드 적금' 가입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적금상품 가입 고객을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오는 7월 29일까지 'JB슈퍼씨드 적금 X 미니참고 다락'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JB슈퍼씨드 적금'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대표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인 '미니참고 다락'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고객들은 적금을 통한 목돈 마련과 함께 집 보관이나 이사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JB슈퍼씨드 적금'은 기본금리 연 3.3%의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정상 납입 시 매일 1개의 씨드(가입기간 최대 11개)가 제공된다.

이 가운데 슈퍼씨드가 당첨되면 연 10.0%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돼 최고 연 13.3%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전북은행 대표 인기 상품이다.

## 전북 신규 마을기업 지정 희망 공동체 대상 교육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신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차년도 마을기업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을기업의 기본 개념과 설

립 절차 등을 안내하는 입문 과정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6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5월 22일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청 마을기업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공동체는 조합원 5인 이상이 반드시 총 7시간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향후 신규 지정 공모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창출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경제조직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총 129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중소 · 벤처기업 시제품 · 시금형 제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차 접수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시제품과 시금형 제작을 지원해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제품 완성도를 높이고, 기술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오는 5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도내 매출 100억 원 미만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공모형, R&D 연계형, 글로벌대학 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되며, 총 16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약 4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별 지원 규모는 최대 3천만~4천만 원 수준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공모형 약 15개 과제와 R&D 연계형 2건, 글로벌대학

연계형 3건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형은 도내에 소재한 매출 100억 원 미만 중소·벤처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3400만 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4개월이다.

글로벌대학 연계형은 전북대학교 또는 원광대학교가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며 지원 조건은 공모형과 동일하다.

R&D 연계형은 국가 또는 지역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모형과 글로벌대학 연계형 사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또 구비화약서를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비용까지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